

# 군민 삶의 질 더 향상·서해안 중심도시 실현해 나갈 것

재선이 된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 서해안 중심도시 부안을 꼭 실현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권익현 군수를 찾아 민선8기 부안발전과 관련, 그의 포부를 들어본다.



Q. 부안군 사상 첫 2선 부안군수로 민선 8기 부안군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다면?

A. 민선8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안군정의 완성도와 속도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에는 부안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민선8기에는 부안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의 완성도와 속도감을 높여야 합니다.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드는 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8기 부안군정은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 육성과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공항 마리나 항만 건설, 관광형 노출대교 건립, 격포권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부안발전을 위한 많은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민선8기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완성도와 속도감을 높여야 합니다.

국내 최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전북 최초 정부 아규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테라리츠 등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과 협력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갈 격포권 복합관광단지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부안푸드 앤 레포츠 타운 조성과 푸드플랜 지주인증을 시행 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사업도 속도를 높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도시 부안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선8기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완성도와 속도를 높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부안발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군민 복지 실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A. 부안군은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보장 등 군민이 행복한 부안형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인만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는 대부분 공공형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형 일자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



민선8기 부안발전 위해 수소산업·푸드플랜 등 완성도·속도감 높여 지역발전 열매 맺도록 최선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안정적인 노후보장 등 맞춤형 복지추진에 노력

민선7기 성과 바탕으로 관광 르네상스 시대 열 것

니어인턴십을 비롯한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직 종사자, 영농사업단 확대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이며 추가사업 수익 발생으로 사업비 절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높아진 복지요구에 발맞춰 현

재 보건소 및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안실버복지관 협력 하에 체조, 공예, 레크리에이션 등의 노인이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실현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인 돌봄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 돌봄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이용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질과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밝힌 사회적공약 등을 통해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통해 무릎이 아파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제로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부안청년UP기금 50억원을 조성해 청년들의 일자리 및 창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도 도입할 계획이며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기회 확대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위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보행약자의 불편사항 해소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정비 시행과 소형어선 어구 지원사업도 시행해 어촌지역 소득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안군민 모두가 부안군민이라는 자랑스런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부안군 명품화 관광지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A. 관광산업을 부안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민선7기에는 민선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안군 관광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항 마리나항만 연계 크루즈 기항지 조성, 격포권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조성, 새만금 돈지 유람선 기항지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부안의 기반을 마련하고,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랜드 조성, 새만금 웰빙 테마파크 건립, 새만금 VR 테마파크 건립 등을 통해 부안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 섬 속 자연휴양림 조성, 울진과 함께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실현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170여개국 5만여명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통해 세계 속으로 비상하는 부안관광의 청사진을 그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안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체석강·적벽강, 직소폭포, 우금비류 등 국가명승 3개소가 지정된 지자체입니다. 부안은 전국 최고의 변산노을이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어 전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관광지입니다.

부안의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변산반도가 보유하고 있는 내륙·해안 관광특화자원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가진 변산해수욕장의 문화적 고유자산 노을을 최대한 활용해 부안의 관광가치를 제창조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부안을 찾아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농촌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A. 부안군은 생산부터 판매 소비까지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농업·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부안형 푸드플랜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로 1년을 맞이한 부안로컬푸드도 현재 29개 농가, 42개 가공업체, 5개 영농사업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안로컬푸드직매장 7곳, 밭밭할매는 20여명의 매출을 올리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통망 확충을 위해 격포야타 지역에 제의 직매장 설치를 추진 중이며, 온라인 판매 강화를 위해 별도 이커머스를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오는 2025년까지 월소득 150만원 이상 1000농가 육성과 유통망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 구축과 군민의 먹거리 질 향상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활동 주체인 지역액션그룹 2개소를 양성해 개소당 최대 1억원씩 지원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가부담률을 현재 20%에서 올해부터 5%의 경감해 오는 2025년에는 농가부담률 제로화를 이루겠습니다.

부안군 전체 여성농업인은 1만 1340명으로 농업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동의 대가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위해 건강관리와 문화지원 일손경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민축산식품부에서 계획 중인 1인당 17~21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부안군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부안군민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A.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미래 100년 부안을 위해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안은 처음으로 온전한 연임 재선군수가 탄생하면서 부안 대도약 시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안은 온전한 연임 재선군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군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많은 지역 현안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좌초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전의 흔적을 없애는 건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저는 민선7기 부안군수에 취임한 후 군수의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바로 좋은 정책에 대한 군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가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8기에 이어 민선9기에도 크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색있게 부안군정을 이끌어 사람과 기업, 돈이 모여드는 지속가능한 부안, 혁신과 발전하는 부안을 꼭 만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김석진기자

